

주머니에 쏙... '패커블' 아이템이 뜬다

(packable: 짐꾸러기에 쏙거나 넣기에 알맞은)

요즘 뜨는 바캉스 패션

에이글, 천연 레인부츠로 우천 대비 로가디스, 패커블 기능 스마트 슈트 토리버치 '비치백' 가벼운 집엔 제격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제철을 만난 아웃도어와 패션업계들은 다양한 바캉스 아이템들을 선보이며 막판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올해 바캉스 아이템들을 살펴보면 짐의 부피와 무게를 덜어주는, 가볍고 실속있는 아이템들이 특히 인기를 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작은 부피로 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패커블(packable)' 아이템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패커블 레인부츠·윈드브레이크로 변화무쌍한 날씨 대비

일기예보를 꼼꼼하게 체크해서 옷가지를 준비해도 막상 휴가길에 오르면 예상치 못한 날씨에 당황하기 일쑤다. 프렌치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에이글에서는 변화무쌍한 휴가지 날씨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패커블 아이템들을 선보였다.

콤팩트한 사이즈로 접어 파우치에 넣을 수 있는 '베일리프(BAYLEAF) 재킷'이 대표적이다. 휴가지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빛을 발하는 아이템이다. 긴 소매 디자인이 뜨거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며, 발수기능성 소재를 사용해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도 효율적으로 스타일링할 수 있다. 은은하게 퍼지는 수채화 느낌의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마린룩 감성을 더했다.

여름에는 시도 때도 없이 비를 만나게 된다. 비 오는 날씨에도 걱정 없이 휴가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레인부츠를 챙겨두면 멋과 실용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에이글의 '미스마리온(MISS MARION)'은 가벼울 뿐 아니라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작은 부피로 여행 짐을 꾸릴 수 있다. 부드러운 러버(고무) 소재를 사용했다. 형태 복원력이 탁월해 접어두었다 착용해도 구김이 전혀 없는 것이 장점이다. 에이글의 부츠는 프랑스에서 200명의 러버 마스터의 손길로 60개 이상의 단계를 거친다.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져 높은 퀄리티로 완성된다. 천연 러버를 주 소재로 사용해 내구성이 뛰어나고, 착용시 불쾌감이나 답답함이 없다.

여행지에서 멋진 디너를 계획 중이라면 슈트도 함께 준비해 보면 어떨까.

로가디스는 여름시즌을 맞아 패커블 기능이 한층 강화된 스마트 슈트를 선보였다. 탄력성이 뛰어나 구김



휴가지에 가져갈 짐은 가볍고 부피가 작은 게 '갑'이다. 파우치에 쏙 들어가는 빙풍재킷, 접어 보관하는 레인부츠 등 '패커블 아이템'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에이글의 패커블 제품을 착용한 모델. 사진제공 | 에이글

이 탈 가는 태번수 소재를 활용해 장시간 착용하거나 가방에 넣어 이동해도 덜 구겨지고 쉽게 퍼져 여행지에선 스타일링을 하기에 좋다. 빗방울이나 음료가 옷에 튀어도 손쉽게 털어낼 수 있는 생활 발수, 오염 방지(방오) 기능을 특화한 '프로바(Prova·발수라는 뜻의 이태리어)' 기능을 추가했다.

●패커블 비치백으로 리조트룩 완성

비치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리버치의 '패커블 엘라 토트'는 아코디언처럼 납작하게 접을 수 있어 가벼운 짐 꾸러기에 제격이다. 블루 앤 화이트의 스트라이프 패턴이 세련되면서 시원해 보인다. 나일론 소재로 방수 기능을 더해 여름철에 더욱 빛을 발한다. 어떤 리조트룩에도 잘 어울

린다. 에이글 관계자는 "휴대가 간편한 패커블 아이템들이 휴가철을 맞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패커블 아이템들을 잘 활용하면 적은 짐으로도 휴가지의 급변하는 날씨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보다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초코파이, 글로벌 누적매출 4조

세계 60개국 수출...42년만의 성과

창립 60주년을 맞은 오리온은 25일 대표상품인 '초코파이情'의 글로벌 누적매출이 4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초코파이는 올해 상반기에만 국내 및 중국 등 해외법인 합산 매출 2000억원을 올리며 누적매출 4조 1500억원을 기록했다. 초코파이 탄생 42년 만에 거둔 성과다.

1974년에 출시된 초코파이는 1997년 중국에 생산공장을 설립하며 해외 진출의 길을 열었다. 현재는 미국, 브라질, 이란 등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판매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오리온은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품 혁신도 지속하고 있다. 과대 포장에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자 지난

2014년 11월 제과업계 최초로 제품 포장의 전반적인 혁신을 선언하고, 21개 제품 포장재의 빈 공간 비율을 낮추고 크기를 줄이는 1차 포장재 개선을 완료했다. 최근에는 비스킷과 껌 제품들의 포장 크기를 줄이고 가격을 낮춰 가성비 높은 4차 포장재 개선을 단행했다. 오리온은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한다"는 철학에 따라 소비자 만족을 최우선으로 한 제품혁신을 지속해 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리온은 올해를 새로운 출발의 원년으로 삼고 제과기업을 넘어 식품회사로 영역을 확장해 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프리미엄 가공식품 생산을 위해 농협과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리온 '초코파이情'이 글로벌 누적매출 4조원을 돌파했다. 1956년 7월 창립된 오리온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식품사업 영역 확장에 나선다. 오리온의 다양한 제품들. 사진제공 | 오리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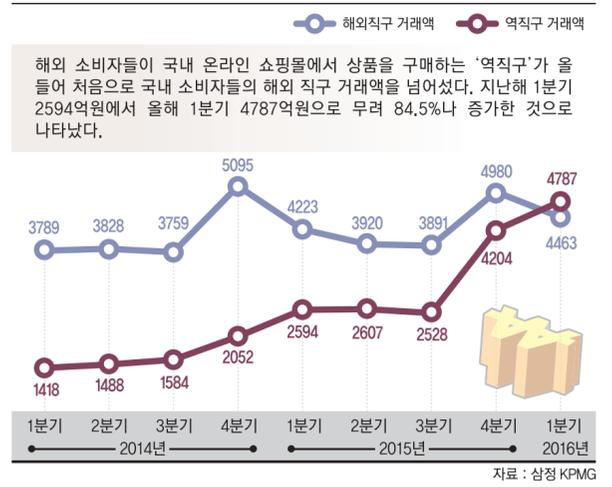
오리온 이경재 사장은 "지난 60년간 변함없이 오리온 제품을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식품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전통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더 큰 만족과 감동을 드리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쇼핑 채널 K쇼핑, 웹드라마 기획진

KTH는 T커머스 서비스 'K쇼핑'에 업계 최초로 쇼핑 채널에서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맛있는 웹드라마 기획진'을 론칭했다. 고객들은 홈쇼핑 채널에서 웹드라마를 무료로 감상하는 한편 드라마 속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KTH는 8월5일까지 웹드라마 '출출한 여자 시즌2' 전편을 무료로 제공하고 드라마 속 상품인 '이금기 소스' 론칭 세트 12종을 최대 15%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K쇼핑 채널에서 리모컨으로 우측의 웹드라마 메뉴를 선택한 뒤 시청하면 된다. TV다시보기 및 영화를 선택하듯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리모컨으로 선택해 감상할 수 있다. T V 이외에도 K쇼핑 온라인몰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출출한 여자 시즌2'는 지난 1월 네이버 TV캐스트에 처음 공개돼 일주일 만에 100만 재생수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은 작품이다.

데이터로 보는 경제 해외 역직구 거래액 추이 (단위: 억원)



갤노트7 vs 아이폰7...프리미엄폰 전쟁

삼성 8월 2일·애플 9월 중순 공개

"이제는 프리미엄폰이다." 중저가폰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8월부터 스마트폰 강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주력 모델을 잇달아 선보이면서 치열한 시장 경쟁을 벌인다. 무엇보다 최근 실적의 회복이 뚜렷하게 갈린 양사의 새로운 주력 제품이 어떤 성과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분기 스마트폰 사업부 실적에 힘입어 '어닝프라이즈'를 기록한 삼성전자는 8월2일 '갤럭시노트7'을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최근 전 세계 미디어에 신제품 공개 행사 초청장을 보냈다. 행사는 미국 뉴욕은 물론 영국 런던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도 열린다. 제품 뒤에 붙은 넘버는 '7'로 결정됐다. '갤럭시노트' 시리즈는 지난

해 '5'가 출시됐다. 순서대로라면 올해 '갤럭시노트6'가 나올 차례지만 일관성을 위해 상반기 출시한 '갤럭시S7'과 숫자를 통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삼성전자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품은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높은 사양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채인식' 기능이 업계 최초로 구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분기 13년 만에 분기매출 감소로 경험한 애플은 '아이폰7'을 9월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출시일은 9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애플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아이폰 단자를 없애 더욱 얇은 디자인을 구현하는 한편 카메라 기능을 강화하고 방수기능 등을 적용할 것이라 루머가 나오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르노삼성, 차세대 엔진 생산 프로젝트 유치

부산공장, 주요부품 국산화 타력 연간 131억 '수입 대체 효과' 예상

르노삼성자동차는 25일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소속 해외 엔진 공장들과 첨단 엔진 생산 프로젝트 유치 경쟁에서 부산시의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차세대 엔진 생산 시설 유치를 성공했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은 SM6 등에 장착되는 1.6L GDI 터보 MR엔진 및 2.0L GDI MR엔진 생산에 필요한 칼린 터블러, 실린더 헤드, 크랭크 샤프트, 캠 샤프트, 커넥팅 로드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일본 요코하마 닛산 공장, 중국 동펄 르노 공장과 첨단 엔진 설비 시설 유치 경쟁을 벌였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한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은 이번 엔진 핵심 부품 국산화 성공으로 연간 131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부산공장에서 생산된 엔진을 프랑스, 스페인 등에 소재한



르노삼성 부산공장에서 2.0L GDI MR엔진에 장착된 SM6를 작업자가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 르노삼성자동차

르노 그룹의 차량 생산 공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첨단 엔진 프로젝트 유치 성공은 성능과 연비가 대폭 개선된 1.8L GDI 터보 MR엔진의 부산공장 생산 유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르노의 에스페이스(ESPACE), 메간(MEGANE), 알핀(ALPINE) 등의 차량에 장착되는 1.8L GDI 터보 MR엔진을 부산공장에서 생산해 수출할 경우 연간 984억원 상당의 추가 수출이 예상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편의점 용기의 진화 GS25 즉석조리용기 업계 최초 도입

1인 가구가 늘면서 편의점 먹을거리 인기

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음식을 담은 그릇도 진화하고 있다. 제품을 직접 불에 익혀 먹을 수 있는 냄비는 물론 음식을 다 먹은 뒤 활용할 수 있는 밀폐용기도 등장했다.

GS25는 가정간편식 '유어스모듬뿍 부대찌개'(사진)를 선보였다. 순수 알루미늄으로 만든 즉석 조리 냄비를 용기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포장된 재료를 잘 섞어 불만 부어 6분간 끓인 뒤, 라면사리를 추가해 2분간 더 끓이기만 하면 모듬뿍부대찌개를 즐길 수 있다. 가격은 4900원.

GS25는 영국의 즉석조리용기 업체 용기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부대찌개를 시작으로 매달 즉석조리가 가능



한 가정간편식을 출시할 계획이다. 즉석조리는 1인가구의 가정식은 물론 캠핑 등 야외 활동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도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세븐일레븐은 이달 초 업계 최초로 밀폐용기를 활용한 '미니박스 볶음밥' 2종을 선보였다. '스팸김치볶음밥 미니박스'와 '베이컨치즈볶음밥 미니박스'로 가격은 1600원이다. 미니박스 볶음밥은 일반적으로 일회용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다른 편의점 먹을거리와 달리 밀폐용기에 담겨 용기 활용도를 높였다. 일반 도시락 용기처럼 뚜껑을 열지 않아도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으며, 먹고 난 후에는 간식이나 반찬 용기로 활용할 수 있다. 김명근 기자